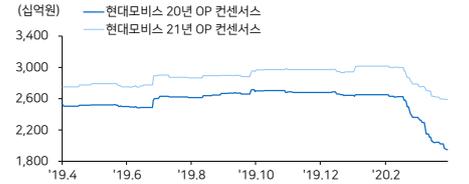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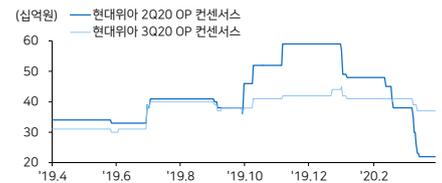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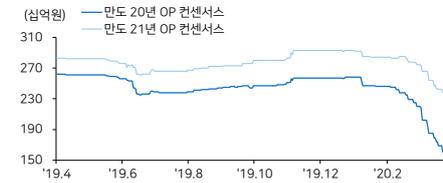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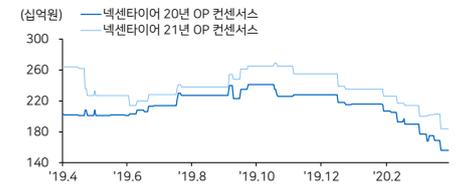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제네시스 'G90'에 라이더 2개 단다...자율주행 '레벨3' 구현 (전자신문)

현대차가 자사제 제네시스 'G90'에 세계 최초로 2개의 '라이더'를 장착한다. 2개의 라이더는 기존 카메라·레이더(RADAR) 센서와 함께 현대차가 독자 개발한 제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ttps://bit.ly/35667dg>

'아이오닉 후속으로 출시' 현대차, 순수 EV 컨셉트 프로토타입 양산 결정

현대차가 지난달 세계 최초로 공개했던 순수전기 컨셉트 'Prophecy'를 양산. 최근 현대차 글로벌 디자인센터가 이상엽 전무는 자동차 전문매체 오트모티브와의 인터뷰에서 순수 전기 컨셉트 45와 프로토타입의 양산을 언급했다. <https://bit.ly/3eSxFHB>

기아차, 중국에서 판매 반등 위해 셀토스 전기차 출시로 가닥 잡아 (비즈니스포스트)

기아자동차가 중국에서 판매 반등을 위해 셀토스 전기차 출시를 저울질하고 있다. 기아차는 중국에서 유독 부진한 판매실적을 내고 있는 셀토스가 모처럼 흥행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런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라인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ttps://bit.ly/2KAWFFh>

현대·기아차, 환경부 주관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MOU' 체결 (다덕터)

현대·기아차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MOU'를 체결. 이번 협력 강화는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보급 확대 및 적기 공급 △물류사 전기화물차 구매 전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https://bit.ly/2KyrYAE>

기아차, 2021년 신형 PHEV 크로스오버 출시...1회 충전 482km 주행 (지피코리아)

기아자동차가 2021년 연말에 신형 PHEV 크로스오버를 출시한다는 계획. 기아차 북미법인 제품 및 기술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와 북미 제품전략부 담당자는 지구의 날을 맞아 공개된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https://bit.ly/2KDrJUQ>

현대차 부품공급망 베트남·캄보디아로 확대 검토 (매일경제)

현대차 그룹은 공급망 다변화도 적극 검토 중. 중국에 치우친 공급망 등을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로 확대하는 안을 고려 중. 현대차 글로벌경영연구소는 "공급망 관리 관점을 비용 효율성에서 안정성으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s://bit.ly/3eUr9J>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비상경영 와중에도 '미래 먹거리 투자 지속' (데일리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일제히 비상경영체제에 돌입.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연구·개발(R&D)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https://bit.ly/2S9vhv>

코로나19 여파 현대차 올해 첫 임금교섭 7월로 늦어질 듯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현대자동차 임금협상 시작 시점이 7월까지 늦춰질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는 일반적으로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안에 임금협상을 위한 노사 상건제 자리를 마련했으나 올해는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https://bit.ly/2W134i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는 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